

정치적 활동 및 기부



Unilever 회사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기부금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.
직원은 개인 역량으로만 정치 단체를 후원하고 기부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

이 윤리강령에는 Unilever 직원이 정치 단체와의 비즈니스 관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설명되어 있습니다.

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

직원은 반드시:

- 정당에 대한 기부 및 후원은 명백히 개인적이어야 하며 Unilever와 연결되어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;
- 개인적인 정치적 지원이나 기부는 직장에서의 실적이나 객관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.
(이해관계 상충 피하기에 대한 윤리강령 참조)
- 정부가 설립한 단체 또는 경제 자문 그룹에서 Unilever를 대표하는 경우, 이러한 그룹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부서 총괄 책임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.

활동에 대한 비정당 및 비정치적인 특성이 여러 자문 집단에 의해 공개적으로 승인되어야 가능합니다.
이러한 업무가 Unilever의 기업 비전을 지원하는 영역과 관련되어 있고, 이 자문 집단에 잘 알려진 동종 업계 회사, 국가 자선단체, 비정치적 연구 집단, 연구 조직 및 학술 대표단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 등 광범위한 조직의 대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승인이 부여됩니다.

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

직원은 절대:

- 위에 언급된 사회적/경제적 단체에 참여하더라도 절대 이해관계 상충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.
(이해관계 상충 피하기에 대한 윤리강령 참조)